통일애국투사를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여

27년전 3월 19일은 온 나라 인민들이 다 아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리인모선생이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꿈결에도 그리던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날이다.

그는 일찌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체포되여 남녘의 감옥에서 한두해도 아니고 34년간이나 옥중살이를 하였다. 그 기나긴 나날 리인모선생은 매일같이 사상전향을 강요하며 가해지는 살인적인 고문과 회유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통일신념과 지조를 꿋꿋이 지키였다.

그는 남쪽에서 다 죽었던 사람이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에도 잊혀져있던 사람이였다.

이런 그를 조국에서는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잊지 않고 기어이 데려다가 영생의 삶을 안겨주었다.

지금도 평양의 거리거리마다 펼쳐졌던 환영의 꽃물결을 잊을수가 없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 리인모!》,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차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격에 겨워 손으로 답례를 보내던 리인모선생의 그 주름진 얼굴에서도 눈물이 걷잡을수 없이 흘러내리였다.

그것은 꿈에서도 그려본적 없는 너무도 크나큰 영광이였고 환대였다. 지옥에서 락원에로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였다.

통일애국의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자욱을 새겨가고 위훈을 세운 사람들을 공화국은 잊지 않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의 모진 옥중고초를 당하면서도 통일신념과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은 리인모선생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인모선생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기 한해전 어느날 일군들에게 하신 교시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세상에 리인모처럼 신념이 확고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그는 전향문만 한장 쓰면 오래동안 감옥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지 않을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그가 당과 수령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은 승리하고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장한 아들,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리인모선생을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불러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어느해 정초에는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리인모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그냥 남쪽에 있으면 죽을수도 있으니 빨리 조국에 데려다 살려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가 처자와 만나 살면서 손자, 손녀를 앞세우고 모란봉에도 오르고 평양의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이르시였다.

리인모선생의 귀환을 위해 쉬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운명의 구세주, 조국의 품에 안긴 그의 건강을 위해 귀한 약재들도 안겨주시고 외국에 가서 치료까지 받도록 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은 식어가던 그의 육체를 재생시킨 불사약이 되였고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생명소가 되였다.

주체82(1993)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생신날에도 몸소 병원을 찾으시여 리인모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그를 높이 내세워주시며 원쑤와 싸워이긴 불굴의 투지와 신념을 가지고 병치료를 잘하여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기념 열병식장에 나서자고 뜨겁게 고무하여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남조선에서 있을 때 벌써 영웅의 금별메달수훈자로 내세워주시고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을 때에는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인모선생을 전승 4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전국로병대회와 경축열병식장의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보셔야 할 일, 관심하셔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으셨던가. 하지만 그이께서는 리인모선생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그의 병상태를 놓고 마음쓰시며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크고 아담한 집에서 가족들과 여생을 즐기도록 해주신 다심한 그 은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가 입맛을 잃을세라 희귀한 남방과일과 물고기도 보내주시였으며 건강과 영양상태를 유지하도록 각종 보약들과 고급영양제들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오랜 감옥살이로 폐인이 된 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아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외국에서 병치료를 받도록 해주신 장군님의 그 사랑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던가.

리인모선생은 그 열렬하고 무한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조국의 품에 안긴 후 불과 며칠밖에 못산 다던 남조선의학계의 진단을 부정하고 14년간이나 행복속에 여생을 즐겁게 보낼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애석해하시며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의 장의식을 인민문화궁전에서 공화국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인민장으로 하며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해주시였다.

생전의 행복했던 모습그대로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만사람의 존경을 받고있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의 모습은 어떤 삶이 값높고 영생하는 삶인가 하는것을 우리 겨레와 후대들에게 새겨주고있다.

고영식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5.10단선》을 파탄시킨 통일애국투쟁의 불길

4월남북련석회의에서 내온 《남조선단선반대전국투쟁위원회》의 지도밑에 북과 남에서는 《5.10단선》을 반대배격하는 거족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남조선인민들은 《5.10단선》을 분쇄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을 준비하였다.

선거전야에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더욱 높아지자 외세는 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을 《준계엄상태에 둔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남조선전역을 총검으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 각종 테로단원들로 뒤덮인 폭압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러나 외세의 그 어떤 발악도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남조선 각지에는 《단선단정반대투쟁위원회》들이 조직되고 로동자들의 총파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남조선단선단정반대투쟁총파업위원회》가 나왔다.

1948년 5월 8일 《총파업위원회》의 지도밑에 로동자들은 《단선단정을 반대한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등의 구호를 들고 파업과 시위에로 넘어갔다. 총파업으로 남조선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은 문을 닫고 철도와 통신련락은 거의 끊어져버렸다. 로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특히 치렬하게 벌어졌다.

총파업의 불길이 타오르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하급공무원, 종교인 등 각계층 인민들이 로동자들과 함께 시위, 동맹휴학, 홰불올리기, 선거장 및 선거사무소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서 선거장들과 경찰관파출소, 관공서 등이 군중의 습격에 의하여 련이어 파괴소각되였다.

경상남도 거창군안의 애국적인민들은 량곡창고를 들이쳐서 식량을 빼앗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단선》결사반대를 결의하는 군중대회를 진행하는 등으로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특히 거창군 북상면의 청년 100여명은 결사대를 뭇고 선거장을 습격파괴함과 동시에 밀려든 경관들과 격투를 벌리였다.

전라남도 령암군 도포면 봉호리에서는 청년들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5월 10일에 선거에 강제동원하려고 날뛰는 악질테로분자들을 처단하였으며 무안군 일로면 농민들은 자체로 무장을 갖추고 립후보자와 악질반동들을 처단하였다. 제주도에서는 《5.10단선》을 반대하는 치렬한 인민항쟁이 벌어졌다.

《단독선거》반대투쟁에는 청년학생들도 적극 합류하여 투쟁하였다. 서울시 학생들은 5월 8일 모든 남조선 학생들에게 《매국투표 거부하라!》, 《미군 즉시 철거하라!》, 《남북통일정부수립 만세!》등의 구호를 제시한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비롯한 30여개의 대학과 전문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밖에도 5월 10일 대구시의 대학 및 중학교 학생 1만 2 000여명이 참가한 동맹휴학, 광주시 대학생들의 《단선》반대시위투쟁 등 여러곳에서 학생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대중적항쟁은 《국방경비대》에도 충격적영향을 주어 인민들의 투쟁에 합류하는 의거투쟁과 그에 대한 동정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제주도에서 제9련대산하 한개 중대의 의거가 있은데 뒤이어 남조선강원도 홍천주둔 제8련대산하 독립중대는 《군사연습》을 구실로 인민탄압을 위한 경찰의 기동을 저지시켜 《단선》반대투쟁을 지원하였고 5월 7일에는 해안경비선 《통천》호소속 대원들이 인민탄압을 거역하고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의거입북하였다.

5월 10일 선거당일날에는 남조선인민들의 절대다수가 산과 숲속에 몸을 숨기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5.10단선》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운동의 기본전술은 거부전술이였다. 이 거부전술은 립후보와 선거자등록의 거부, 투표불참가에 그치지 않고 파업과 시위로부터 폭동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적극적인 형태로써 전개되였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8년 2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의 총투쟁건수 8 393건가운데서 폭력적투쟁형태로 벌어진것이 6 769건으로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는 투쟁이 인민봉기에로까지 발전하였다.

이것은 《5.10단선》반대투쟁이 매우 적극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며 이 투쟁에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열의가 높이 발휘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투쟁은 또한 남조선전역을 휩쓴 전인민적투쟁으로 전개되였다. 남조선의 9개 도(서울시와 8개 도)에서 빠짐없이 투쟁이 벌어졌으며 156개 시, 군가운데 142개 시, 군에서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남조선민전산하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간파 우익의 여러 정당, 단체들도 선거를 배격하였다. 극소수의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인 지어는 량심적인 군인과 종교인 등 각계층 인민들이 거족적으로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투쟁참가인원은 근 100만명에 달하였다. 선거를 거부하였거나 강제에 못이겨 투표에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들까지 고려한다면 투쟁에 참가한 잠재적인 원수는 남조선 총유권자의 대다수와 맞먹는 방대한 규모의것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배격투쟁으로 《5.10단선》은 사실상 파탄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선거위원회가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중에서 2개 선거구에서 선거놀음이 진행되지조차 못하고 다른 한개 선거구에서도 대다수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경상남북도에서는 유권자의 겨우 10~20%가 강제에 못이겨 선거에 참가하였을뿐이였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은 선거가 있은지 10여일이 지난 5월 22일까지도 30개 선거구의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남조선인민들은 전인민적인 투쟁으로 《5.10단선》을 파탄시킴으로써 외세의 민족분렬책동과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공화국의 품에 안겨

식민지문학소년이 명망높은 작가로

작가 송영은 남조선에서 살다가 해방직후 공화국에 들어와 인생을 참답게 꽃피운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03년 5월에 서울의 어느 한 문인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문학애호가였고 아버지 역시 《강능추월》을 비롯한 신소설을 창작한 작가의 한사람이였다. 그러고보면 3대를 문학을 업으로 살아왔다고 볼수 있다.

송영은 당시 서울 보인학교를 거쳐 1917년에 서울배재고보에 입학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후날 《애국가》를 쓴 시인 박세영과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처음부터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문학소년 송영에 대하여 박세영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학생시절에 송영은 특히 작문에서 우수한 모범을 보였다. 그리하여 작문교원은 그를 높이 평가했으며 나중에는 간혹 송영의 작문으로 작문시범까지 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16살의 소년으로서 자긍할수 있었건만 그는 더없이 겸손할뿐이였다.》

2학년때에 송영은 박세영을 비롯한 여러 친지들과 함께 《새 누리》라는 륜독문예습작잡지를 발간하였다.

당시 서울배재고보에는 량심적인 민족주의지식인들이 적지 않게 교편을 잡고있었기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아 반일적인 민족주의사상이 농후하였다.

1919년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송영은 동창생인 박세영 등 몇몇의 학우들과 함께 《자유신종보》라는 신문을 6호까지 발행하였는데 군중들속에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한것으로 하여 퇴학처분을 받게 되였다.

그때 붙은 《사상불온》 딱지때문에 그는 다시 학교에 다닐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의 령락으로 그는 운송점에서 잡역으로 일하게 되였다. 로동생활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 시련많은 나날들은 송영의 사상의식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서 문학수업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속에서도 넘치는 청춘의 열정으로 《구름 끌까지》와 《어부》라는 근 만매에 가까운 두편의 습작장편소설도 썼고 이름있는 작가들이 남긴 수많은 작품들을 탐독하면서 문학수업을 꾸준히 해나갔다.

그후 그는 우편국의 하급사무원으로 일하던중 왜놈우편국장으로부터 민족적차별과 멸시를 받게 되자 더는 참을수 없어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꾜의 유리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이악하게 노력하여 도꾜대학 예술과 야간을 다니였다. 낮에는 고된 로동을 하고 밤에는 늦도록 공부하였으며 쉬는날이 따로없이 일에 시달리는것과 같은 생활체험은 그의 세계관형성과 작가적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22년말에 서울로 돌아온 송영은 제약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면서 문학을 지향하는 동료들과 함께 조선에서 처음으로 첫 프로레타리아문학단체인 《염군사》를 조직하였다.

일제경찰의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염군사》는 자기의 기관지를 통하여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송영의 단편소설 《남남대전》, 《어두운 마을》, 희곡 《백양화》가 그 대표작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계급투쟁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매국노들의 죄행을 날날이 폭로비판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염군사》의 잡지 《염군》은 끝내 폐간당하였지만 송영은 맥을 놓지 않고 1924년에 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을 형상한 첫 작품으로 되는 단편소설 《늘어가는 무리》를 발표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의 중심인물로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그후 송영은 개편된 카프의 서기장으로 사업하면서 기관지 《조선문예》, 《문학창조》편집사업에도 관계하였으며 아동잡지 《별나라》편집도 맡아보았다.

이 나날에 그는 단편소설 《용광로》(1925년), 《선동자》(1925년), 《석공조합대표》(1926년), 《군중정류》, 《옷자락은 기발같이》(1929년), 《쫓겨가신 선생님》(1930년), 《새로 들어온 야학생》(1931년), 《을밀대》(1931년), 중편소설 《호미를 쥐고》, 희곡 《호신술》(1928년), 《일체면회를 거절하라》(1929년), 《신임리사장》(1934년), 《황금산》(1937년), 《김삿갓》(1938년)을 비롯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카프를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책동으로 송영은 여러 카프성원들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파란만장의 곡절많은 운명을 강요당하던 그들에게도 해방의 날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또 다른 외세의 남조선강점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있었다.

적지 않은 작가, 예술인들이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 북으로 떠나갔으나 남다른 마음속고충으로 송영은 선뜻 38° 선을 넘을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깊어가는 번민으로 가슴을 태우던 그에게 꿈같은 행운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교시를 받들고 평양에서 사람이 찾아왔던것이다.

(건국사업에 그토록 분망하신 장군님께서 나같은 사람까지 몸소 불러주시다니…)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는 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일본놈들의 연극단체에 들었던것을 걱정한것은 공연한것이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민족적량심이 있는 사람이면 과거경력은 개의치 않고 누구나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북행길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안길 품이 얼마나 넓고 따사로운 품인가를 다는 알수 없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있던 송영에게 1946년 8월 어느날 한 일군이 찾아왔다.

《송선생, 기뻐하십시오. 김일성장군님께서 선생에게 북조선연극인동맹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선생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나라 연극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새 민주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믿고계십니다.》

뜻밖의 소식에 접한 송영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음순간 뜨거운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울에 있던 그의 부모와 가족들을 무사히 평양에 데려오게 하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살림살이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나의 운명도 미래도 그이품에 다 맡기고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창작에 한생을 바치리라.)

그의 결심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는 북조선연극인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희곡 《자매》(1949년), 《나란히 선 두 집》(1949년)과 풍자극 《금산군수》(1949년)를 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희곡 《그가 사랑하는 노래》(1952년) 등을 써서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전후시기에 그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한 성원으로 망라되여 그 과정에 보고 듣고 느낀데 기초하여 답사기행문집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1956년)를 내놓았다.

송영선생

또한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가극대본 《밀림아 이야기하라》(1958년), 희곡 《불사조》(1959년) 등을 창작하였다.

그가 이룩한 창작성과는 결코 그의 재능으로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힘들세라 지칠세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그런 값진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전후의 언제인가 그가 완성한 장막희곡 《애국자》를 보아주시려 몸소 극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곁에 앉혀주신 송영의 손을 내내 잡으신채 공연을 관람하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수령님께서는 이 작품에 인민상을 수여하는것과 함께 송영에게 그동안 문학창작에서 거둔 특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도록 하시였다. 하여 그는 공화국에서 첫 인민상계관인(1959년)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어찌 이뿐이랴.

그는 영웅적 문학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직접 받아안는 남다른 영광도 지니였고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가극과 연극을 훌륭하게 완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성과를 그에게 안겨주시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으로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문예총중앙위원, 국립연극극장(오늘의 국립연극단) 총장 등 책임적인 여러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아동문학으로부터 성인문학, 단편소설로부터 장편소설, 단막희곡으로부터 장막희곡, 영화문학과 가극대본, 시와 가사는 물론 수필, 수기, 단상, 기행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포괄하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은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직접 체험하는 행운을 지니였기때문이다.

살아서 마음껏 누린 행복은 그의 사후에도 끝없이 이어졌다.

언제인가 애국렬사릉에 새로 안치할 렬사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왜 여기에 송영이 없는가고 하시면서 공로있는 오랜 작가인데 꼭 애국렬사릉에 령구를 옮겨다가 잘 안치하도록 하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주체75(1986)년 9월 추석날에는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전날에 준공된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회깊은 회고의 교시를 하시다가 렬사릉에 오랜 작가였던 송영이 안치되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송영을 넣었으면 좋습니다라고 하시였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지도 근 10년세월이 흘러 동료작가들은 물론 자식들의 머리에서도 점차 그의 존재가 희미해지고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공헌한 그를 잊지 않으시고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신것이였다.

하기에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작가 송영이 누구나 쉽게 오를수 없는 영생의 높은 언덕에 올랐을 때 그의 자녀들과 친지들은 오열을 터뜨리며 심장의 목소리를 합쳐 시 《어머니》를 절절히 웨치였다.

정녕 공화국의 품은 한 평범한 작가의 가슴속에 간직된 민족적량심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주며 그의 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준 영원한 삶의 품이다.

본사기자